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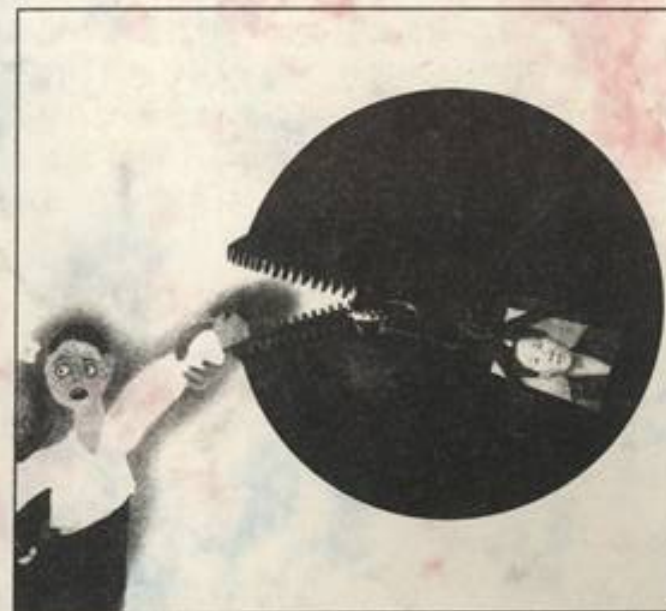


총여학생회 선거 일정

유세일 : 11월 25일
 자유광장 2시
 투표일 : 11월 26일
 오전 9시~오후 6시
 성호관 매점
 경영관 로비
 중앙 대지보판 앞

지주의시대해방전쟁

여속의 껍질을 벗고
 청년여학도의 자부심으로 일어서라!
 1500여학우가 하나되는 심!
 해방조국으로 달려간다!!



3/대/본/때/있/는/총/여/학/생/회/선/거/운/동/본/년

정 : 심정숙 (영문95)

76년 전남 목포 출생
95년 목포 제일여고 졸업
아주대학교 영어영문과 입학
영문과 소학회 쇠찌르레기 활동
총여학생회 학술편집부장 역임
96년 총여학생회 정책기획부장 역임
3대 총여학생회 정후보로 출마

여속의 껍질을 벗고
청년 여학도의 자부심으로
일어선다!

8월 연대항쟁에서는 정부와 언론이 우리의 순수한 통일의 의지를 왜곡시키는 것이 우리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했던 것은 경찰이 우리에게 가한 폭력과 성추행이었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그것은 과거 우리의 할머니들이 겪었던 정신대의 그것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약자였습니다.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민중으로서 그러하고 이땅의 여성으로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역사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1500여학우와 함께 본 때있게 일구어 나갈 것입니다.



부 : 김재진 (법학95)

76년 경기 수원 출생
95년 수원 영신여고 졸업
아주대학교 법학과 입학
역사문제 연구회 활동
96년 여성문제 연구회 '함께' 창립 및 활동
3대 총여학생회 부후보로 출마

1500여학우가
하나되는 새
해방조국으로 달려간다!

밤길 다니기가 무섭고, 몸매에 민감하며 취업난을 느낄때면 결혼이 생각나는 여러분의 달은플 김재진 입니다. 이렇듯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단된 조국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상으로 무척이나 버겁고 우리를 한 인간으로서의 주체적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결코 당연한 것들이 아니기에 저는 여러분과 별다름 없지만 그것을 토대로 삼아 감히 나섭니다.

우리의 공통된 경험들과 일상 생활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로 하나씩 억압의 사슬을 풀 수 있도록 여러방면으로 열성을 쏟을 다짐을 합니다. 그 열성으로 강의실에서, 휴게실에서 교정 곳곳에서 총여학생회를 매개하여 1500이 함께 해방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중여학생회의 97년은 이렇게.....

예속의 껍질을 벗고 ★★☆☆

● 여성을 봉건적으로 움아매는 가부장제 사회

우리들은 태어날때부터 죽을때까지 사람이 아니라 '여자'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집아이', '사내아이'로의 역할을 강요받았고 반장은 남자, 부반장은 여자로 능력보다는 그 사람의 성별로 평가되었습니다. 어른들에게 이쁨받고 주위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예쁘고 착한 여자여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바로 한사람으로 당당하게 커나가기 보다는 인형이 되기를 그리고 여성은 웬지 열등하고 질투심이나 많은 존재로 만들어 여성들끼리의 단결마저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대학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회의식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어 우리 여학우들의 진취적인 성향의 싹을 잘라버리고 있습니다.

● 사회 구조적인 억압과 차별

정치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여성정치인은 평균 2%밖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여성이 정치에 있어 주인이 되지도 못하고 여성의 지위나 생활을 위한 정책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워낙에 못난 것이 아니라 여성의 일은 집안일이라는 사회의 요구가 더욱 큰 것입니다.

경제면에서 보면 고학력 실업자의 증가로 인해 여성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만 고용하려는 성차별의 문제로 똑같이 졸업을 해도 입사원서 받기가 어렵고 혹시 입사를 하더라도 남성의 60%밖에 안되는 월급과 커피, 카피 심부름 등 단순노동 속에서 자신의 자아실현은 온데 간데 없고 자신의 후배가 상관이 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문화면에서 보면 해방 이후 밀려들어온 서구의 문화가 생활깊이 뿌리박으면서 특히 성의 상품화는 대책도 없이 이제는 학내 성폭력이라는 심각한 사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대생들에게는 소비문화를 유포시키고 외모 콤플렉스와 결합하여 서구의 미인을 따라잡기 위하여 늘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한 다이어트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성고용평등법은 아직 사문화 되어 있고 여성차별은 법에도 걸리지 않으며 특히 병역가산특례법은 많은 사람들의 지탄이 됨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살아 있으며 성폭력 특별법의 개정이 요구되는 등 아직까지 봉건성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3대 총여는 이러한 여성으로서의 예속의 껍질을 하나씩 벗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1500 여학우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닐 것입니다.

청년 여학도의 자부심으로 일어서라!

여대생은 여성이기 이전에 청년 학생으로서의 존재적 특성을 가집니다. 청년학생은 자유롭기를 갈망하고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며, 불의를 참지 하는 대학생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대생은 여성으로서 모성에서 비롯되어지는 긍정성 중 성실성과 헌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성들을 집단속에서 발휘하게 된다면 엄청난 힘을 낼 것입니다. 우리 역사속에서의 여성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과거에 여성들의 지위가 지금보다 훨씬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기 위기에 처하면 집단의 힘으로 시대의 부름에 화답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청년 여학도로서의 확고한 자부심으로 우리앞의 그 어떠한 역경과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도 뚫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1500여학우가 하나되는 삶!

사람의 참된 가치의 실현은 집단속에서 발양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요즘이 자기만 잘 나면 잘 살 수 있다는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람은 집단을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여학우들도 여대생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면 하나가 되려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해가 갈수록 여학우 수는 늘어가지만 아무리 여학생 수가 는다 하더라도 하나의 움직임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약자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1500 여학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하나의 커다란 물결을 이루듯 공동체를 실현할 때 우리 여학우들은 진정한 자기 삶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해방 조국으로 달려간다!!

내 조국이 식민지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식민지 조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더욱더 심한 억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좁게는 주한 미군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부터 시작해서 넓게는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퇴폐향락 문화에 의한 성의 상품화, 그리고 성폭력....

여성이 해방된다 하더라도 내 조국이 해방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큰 아픔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여학우들은 봉건 사상을 타파하고 자주, 민주, 통일 투쟁에 떨쳐 일어나므로써 민족자주정권 수립과 통일 조국을 건설하고 인간해방을 안아와야 할 것입니다.

본때 하나! ★★☆☆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힘있게 받아안기 위한 자주적 총여학생회 건설의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여학생회 10년의 역사를 받아안아 총여학생회가 건설 될 때에는 통일 아주의 모든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기 위한 조직 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각 단대 여학생부와 과 여학생부, 소모임의 조직체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여학생부가 있는 단대는 줄어들고 학부제라는 커다란 변화속에 그간에 있었던 과 여학생부, 과 소모임 마저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1학년 여학우들은 선배들과 친해지기 어려웠고 동아리를 들지 않으면 거의 선배들을 모르고 지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여학생들의 자주적 모습에 대한 커다란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 학부제에 맞는 새로운 총여학생회의 체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학년 여학생회(부)를 건설- 올 한해는 학부제로 인해 정말로 엄청난 혼란을 겪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혼란은 올해 뿐 아니라 몇 년을 두고 나타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학생회의 존재가 유명무실화 되었고 학년학생회라는 새로운 체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 97학번 새내기들과 1학년 여학생회를 건설을 고민하고 힘있게 발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기존에 있던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낼 것입니다.

96년 창립된 여성문제 연구회를 더욱 강화, 발전 시킬 것이며 과 여학생 소모임의 경우는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실사작업을 통해 총여와의 지속적인 연계속에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과단위로 이루어졌던 소모임들은 전문성을 가지는 소모임을 만들어 그 속에서 많은 성과들을 내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실제로 자연대 같은 경우는 과체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과 소모임에서 후배들을 챙겨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대는 매년 여학생회가 직선으로 튼튼하게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부제라는 상황에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었던 체계들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총여학생회로의 통큰 단결로 더욱 발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단대 여학생부 재확립

94년 총여학생회 건준위가 있었을 때에는 인문대, 경영대, 자연대 여학생부와 의대 여학생회가 있었으나 지금의 총여학생회는 단대 여학생부가 하나도 건설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자리마저 사라져 버린 지금 단대 여학생부의 재확립이 필요합니다. 전 단대에 다 세우진 못하더라도 한명 한명 만나는 자세로 단대의 여학생들을 책임질 수 있는 여학생부를 다시 건설하겠습니다.

과체계나 학년학생회 체계가 아무리 튼튼하더라도 단대가 부실하면 허리가 약한 것과 같겠지요..



내가 자주가는 곳에 여학생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여학생 휴게실에 가려면 식당까지 가거나 도서관 4층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실제로 여학우들과 만나보면 자신의 단대건물에 자주 있게 되는데 그 건물에 조그마한 휴게실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공대 여학우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 심할 것입니다. 앞으로 단대건물별 여학생 휴게실 확보가 시급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것들은 여학우들의 힘에 의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늑한 여학생 휴게실은 1500 여학우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 여학생처의 건설이 시급합니다.

학내 성폭력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2,3학년쯤 된 여학우라면 아마 자기 자신이나 학교 친구들이 겪어야만 했던 성폭력에 관한 얘기를 한, 두가지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학내 성폭력은 무방비 상태이며 마치 평화로운 듯 간과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 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여학생 처를 제안합니다.

여학생처는 전체 학생들의 복지를 맡고있는 학생과가 있듯이 여학생들의 복지를 고민하는 학생처입니다.

- 성폭력 상담 기구를 설치합니다.

성폭력을 당한 여학우들은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알리지 않고 혼자 고민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원활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도 담당 여교수님을 둔 성폭력 상담 기구가 필요하며 충여학생회와 함께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 성교육을 실시합니다.

성폭력의 방지대책은 우선 올바른 성교육에 있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은 학우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 여대생 취업 대책반 구성

여학우들은 3,4학년이 되면 취업문제로 골치를 썩게 됩니다. 취업에 있어서도 성차별을 받는 등 고통을 겪고있는 여학우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대생들을 위한 취업 지도가 필요합니다.

본따 네잇 ★★☆☆☆☆

조국의 운명과 함께하는 여학우의 삶!

****1997 민중승리의 해에 여성 민중들과 힘차게 연대합니다.

- 기지촌 탐방단을 만들겠습니다.

기지촌은 우리나라가 식민지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주한미군에 의해 만들어진 상업권에 속한 곳입니다. 그곳은 우리 민족의 아픔이 여성이라는 것에 가중되어 가해지고 있는 억압과 범죄의 천국입니다.

94년도까지는 송탄에 있는 참사랑 선교원에서 기지촌 활동을 해 왔으나 그 선교원이 없어짐으로 해서 기지촌 활동을 할 공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기지촌 탐방단을 꾸려서 민족의 수난이 가장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

- 내실있는 농활, 탁활

농활같은 경우 여성농민과 꾸준히 연계하면서 농활이 끝난 후에도 후속작업을 끊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탁아 활동은 우리 지역에 있는 무료 탁아소를 찾아서 소모임과 연계하도록 하여 일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내가 사는 곳 분단된 조국이지만 통일의 작은 움직임 자주교류

북한 여대생과의 자주교류.. 무섭다구요? 하지만 우리는 체제와 사상은 다르지만 같은 여대생입니다. 자주 교류를 통해서 남북 공동의 문제인 정신대 문제도 공동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생활 문화 운동

- 성상품화 없애기 운동을 8천의 힘으로 펼칩니다.

구체적인 실사와 함께 적어도 학교앞의 성상품화는 막아내야 합니다. 성 상품화는 학내 성폭력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성 인식의 확산을 일구어 내면서 학내 성폭력도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우리것 찾기 운동

우리옷 입기, 우리차 마시기 등 우리의 문화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옥상에서 우리들은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곧이어 공포탄 소리가 2번 들렸고 특공대가 헬기에서 내리고 전경들이 옥상문을 부시고 들어왔습니다. 진압 완료.... 우리들은 곧 전경들에게 죽 둘러싸였고 갖가지 욕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여학우와 남학우가 따로 분리되었고 여학생들은 4층 강의실로 이동되었습니다.

'얼굴 더럽게 못생긴 것들이 데모질이나 한다.' '이 ××년들아! 너희 사수대 정신대지?', '김정일 기쁨조나 해라.' '너네 ×해봤나?'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욕설이 오고 갔습니다. 세상에.... 너무도 화가 나고 울분이 터지고 수치심과 모욕감이 끓어올랐지만 그 누구도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욕설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4층에서 1층으로 수도 없이 머리와 배를 맞으면서 내려오면서 그 무시무시한 손길은 내 머리와 배뿐만이 아니라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끌어오르는 분노는 반항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 삭여야만 했습니다. 경찰이 나한테 이럴수가.....

하지만 더욱 더 나를 분노케 한 것은 그 뒤로 경찰서에서 학교에 돌아와서 만난 친구들 대부분이 나와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더욱 심했습니다. 그 이후로 학교에 나타나지 않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경찰에게는 시위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해도 된다는 권한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처음에는 성폭력을 휘두르는 경찰이 미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미워지는 것은 김영삼 정권과 그를 조종하는 미국, 저는 더 이상 참고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이 바라는 대로 뒤에서 눈물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연대항쟁에서 성추행을 당한 우리학교 한 여학우의 진술이었습니다.

▶ 김영삼 정권의 본질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던 사건

학원폭력, 조직폭력, 성폭력을 3대 범죄로 규정하고 성폭력을 추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김영삼의 본질은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자행!! 그것이었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선도하여야 할 민중의 지팡이가 오히려 성폭력을 조장하고 그것도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하였다는 것, 더군다나 진압 당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권력을 남용한 사태에 대해서(물론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 시위여학생에 대한 공권력의 비일비재한 성폭력은 존재하고 있었다) 경찰의 반인권성과 비도덕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속에서 그러한 행위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해짐으로 해서 관할기관의 폭력성이 조장되고 성행한 것에 대해 책임기관의 천박한 인권교육실태는 만방에 알려졌습니다. 또한 정신대문제는 국가의 위압에 의한 성폭력 범죄이며 이를 공식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일본에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꽃같은 청춘을 위안부로 다 빼앗겨 버리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투쟁하고 계신 정신대 할머니들이 살아있는 이 시점에서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압하는 경찰들이 정신대 운운하는 것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까.... 문민정부라고 하는 나라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책임지며 성폭력을 근절하여야 할 경찰이 앞장서서 성폭력을 자행했다면 이것은 누가 책임지고 누가 처벌하여야 하는가.... 이제 김영삼정권의 도덕성 문제를 국민들과 함께 합의하면서 김영삼을 포위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정권을 우리는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민족과 민중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 이 땅 여성들의 자주성을 짓밟는 행위는 극복되어야 합니다.

'여자들은 밥이나 하지 뭐하러 왔나?', '대가리가 멍청한 것들이....', '얼굴이 못생긴 것들이 데모질이나 한다'라는 언어폭력에서 보면 여성들이 새사회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반여성적인 관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걷어차는 성추행이나 '김정일 기쁨조나 해라'라는 말속에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등 여성을 인격이나 존엄을 가진 인간이라는 생각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고 성의 대상으로서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여성을 벌주고 협박하고 모욕하고 비하시키는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중에 적이나 포로에게나 할 수 있는 행위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보복성을 띄고 행해졌습니다. 우리사회속에서 만연한 성의 문제가 공권력에 의해서



정부가 국가안보, 국가존속에 위협이 된다고 보는 집단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의 조짐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고 무시하였던 것은 정권의 본질이자 한계입니다. 이러한 인권유린을 자행한것에 대해 책임성 부재, 공권력에 의해 행해진 폭력혐의에 대한 무반응은 예상되어지는 것이기에 고소, 고발투쟁이 이후 전면적으로 여론화시켜내는 전환점이 되어야 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시위진압과는 무관하게-시위여학생을 성폭력하라는 권한까지 부여되지 않았음-자행된 성폭력 및 보복성 질은 행위에 대한 책임과 그에 응당한 처벌을 요구해 들어가야 합니다.

연세대 과잉진압시 자행된

여대생 집단 성폭력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정부는 공식사과하고 박일룡 경찰청장은 즉각 해임하라!!

진압전경 및 수사관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제도화하라!!



아빠의 생리휴가





